metro

메트로 2013년 2월 4일 월요일 제2603호 www.metrobusan.co.kr

한달 네끼 굶는 '헝그리 20대'

\#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구직 활동을 해온 이진호(29)씨는 최근 수도권의 한 영세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100만원 안팎인 월급으로 원룸 월세와 교통비 등 고정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몇 푼도 남지 않는다. 이씨는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에 우유로라도 끼니를 때우고 싶지만 1500원의 식비도 사치라는 생각이 든다.

\- - -

\# 서울 강서구 소재 택배 물류 집하장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 휴학생 장진기(24)씨는 12시간 가까이 중노동을 하지만 일당은 5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새벽 퇴근길 뜨끈한 해장국의 유혹이 만만치 않지만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아침밥을 챙겨줄 가족도 없어 그냥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밤낮이 바뀐 생활에 툭하면 식사까지 걸러 건강이 걱정된다.

일자리 없고 돈도 없어 꼬르륵 '취업난 보릿고개' 심각

20대 젊은이들에 결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2012 양곡 소비량 조사'를 보면 20대 후반(25~29세) 청년들은 한 달 평균 3.8끼를 굶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초반(20~24세)의 경우도 월 3.7끼를 걸렀다.

결식은 식사 대신 어떤 유형의 식품도 전혀 먹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우유 한 잔이나 과일 한 쪽만 먹어도 식사에 포함된다.

부모가 밥을 챙겨 먹이는 10세 미만의 결식 횟수는 한 달에 1회가 채 안 됐다.

하지만 10대 후반(15~19세)이 되면 2회로 늘어나고, 20대에 들면 4회 가까이로 급증했다. 반면 30대 초반(30~34세)이 되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대 후반 여성이 월 4.5회로 결식 빈도가 가장 높았다. 20대 초반 여성도 월 4회꼴로 식사를 걸렀다. 이처럼 20대의 결식률이 높은 현상은 취업이 점차 늦어지고,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낮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생활 전반의 대부분을 부모의 지원에 기대야 하는 마당이다 보니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 어떠한 혜택도 기대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셈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은 "20대는 구직 활동 중이거나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인구가 많아 월소득이 낮다"며 "제한된 소득에서 주거비와 교통비 등 고정 비용을 빼면 남는 돈이 없어 식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대가 다이어트 때문에 일부러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일부의 해석은 왼연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가 실시한 예비 아빠들의 임신부 체험교실.

아내 출산땐 남편 5일휴가 쓴다

<3일 유급+2일 무급>

2일부터 모든직장 시행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된 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라도 회사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최초 3일은 유급이지만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해도 무방하며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인일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8년 무급 3일로 첫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2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늘어났다.

/장윤희기자 unique@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안보게 기초연금 4그룹 나눠 차등지급 검토

최대 15만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최대 월 15만원의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중복수급 및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보완한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국민연금 미가입 소득 하위 70% (1그룹), 국민연금 가입·소득 하위 70% (2그룹), 국민연금 가입·소득 상위 30% (3그룹), 국민연금 미가입·소득 상위 30% (4그룹)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노인 빈곤'에 취약한 1그룹은 약 300만 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에 통합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현재 월 수령액(9만4600원)의 2배인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는다.

박 당선인은 2그룹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전체 근로자 평균 소득 비례값(A값)을 20만원으로 올려 20만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2그룹은 오히려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20만원(A값 13만원+수령자 평균 소득 비례 B값 7만원)을 받는 사람이 기초노령연금까지 받아 월 29만7000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공약대로 A값을 20만원으로 일원화하면 총 금액(기존 A값 20만원+B값 7만원)은 27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들이 1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A값을 20만원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존 금액에 10만~1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추가 지급하는 보완 방안을 내놨다.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도입 후 실제 수령액이 월 3만~5만원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다.

같은 방법으로 3그룹에는 추가 월 5만~10만원, 4그룹에는 0~5만원 가량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정유리기자 grace@metroseoul.co.kr

60년전 그경기 다시 한번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3일 오전 한국전 휴전 협정 60주년 및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 참전 캐나다 부대의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경기는 1952년 임진강에서 캐나다군이 열었던 '임진강 아이스하키' 경기를 재연한 것이다. / 현정민기자 hmychang@metroseoul.co.kr

'전주 일가족 3명 살해' 범인은 둘째 아들

형 범행으로 꾸미려고 가짜 메시지 보내 위장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가족 3명 사망 사건의 범인은 둘째 아들인 박모(25)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가스 질식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둘째 아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피의자 박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했다. 이어 형(27)도 같은 방법으로 오전 5시께 안방에서 살해했다.

박씨는 부모가 사망한 후 아버지 휴대전화로 공장 직원에게 "내일은 출근하지 마라. 나도 안 나갈 것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형이 죽은 뒤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형 지인에게 "행복해라. 잘 살아라"는 내용을 남겨 형이 살해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화덕과 연탄을 구입하고 시험 연습을 한 점에 비춰 부모의 재산을 노린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유리기자

식물원에서 열린 콘서트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경기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온실식물원에서 열린 입춘맞이 동물사랑 희망콘서트에서 출연자들이 동물들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학년 올라갈수록 '약골'

운동부족 학업부담 늘어 고등학생 체력 가장 부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력이 부실한 학생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과 중고교생 83만6963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한 결과 정상 체력에 못 미치는 4~5등급 학생이 12만7341명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4~5등급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8%(1만5209명)에 그쳤으나 중학교는 13.9%(4만3386명), 고등학교 20.5%(6만8746명)로 급증했다.

반면 체력이 우수한 1~2등급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41.4%(7만8470명), 중학교 40.6%(12만6330명), 고등학교 32.4%(10만9539명)로 학년이 낮을수록 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평균 체력 등급이 낮았다"면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업 부담은 늘어난 반면 운동량이 줄어들어 체력이 저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비롯한 학생 체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유해물 내뿜는 방향제

탈취제 등 80%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10개 가운데 8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81%인 34개 제품에서 벤질알콜, d-리모넨 등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 제품은 세제 등에 적용하는 유럽연합(EU)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조사 제품 가운데 5종은 유해성분 검사를 증명하는 자율안전확인 마크(KC)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액체형 방향제에서는 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모두 나왔다.

특히 벤질알콜은 방향제 4종에서,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34종에서 검출됐다. 우리나라는 탈취제나 방향제에 대한 벤질알콜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 분사형 탈취제와 방향제가 액체 젤형 제품보다 검출농도는 낮지만 인체에 직접 피해를 끼치기 쉬워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함량 뿐만 아니라 제품의 예상 노출량을 고려해 기준치를 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나눔보따리 출발! 서울 중구 필동로 동국대학교에서 3일 열린 '제10회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소녀가장, 쪽방 거주자 등에게 나눔보따리를 직접 전달하러 가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이날 서울 등 전국 27개 지역에서 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총 3500가구에 설과 생활필수품 등을 담은 나눔보따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보다 중금속 많아

국내산 수산물이 중금속 함유량 면에서 수입산보다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3일 발표한 2009~2012년 수산물 중금속 정밀검사 결과를 보면 국내산 수산물의 평균 수은 함유량은 0.029mg/kg으로 기준치(0.5mg/kg)보다 훨씬 낮았다.

반면에 수입 수산물의 평균 수은 함유량은 0.074mg/kg으로 국산보다 많았다.

납 함유량도 국내산과 외국산이 각각 평균 0.056mg/kg, 0.065mg/kg으로 외국산이 더 많았다. 식품 기준인 0.5mg/kg보다는 낮다.

카드뮴 함유량(식품 기준 2.0mg/kg)은 국내산과 외국산이 각각 평균 0.127mg/kg, 0.387mg/kg이었다.

수은 안전 노출량은 국내산 수산물이 국제 기준의 6.2%에 불과했고, 외국산은 16.9%였다. 카드뮴도 국내산 3.4%, 외국산 8.0%로 국내산 수산물이 외국산보다 안전 노출량이 적었다. /김유리기자 grace1@

칫솔,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도 98% 살균

아무렇게나 보관한 칫솔은 세균 덩어리나 다름없다. 올바른 양치질만큼 중요한 게 칫솔 보관. 최근 가정용 전자레인지로도 칫솔 살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동대 치위생과 지윤정 교수가 발표한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칫솔 살균 효과' 논문에 따르면 칫솔을 24시간 건조한 후 1분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평균 98%의 살균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강한 마이크로파에 의해 칫솔의 물리적 성질이 변할 수 있는 만큼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 1~2회 정도 살균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살균 외에 칫솔의 건조도 중요한데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창가에서 완전히 말리는 것이 좋고, 아무리 살균을 잘 하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칫솔을 교체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양치를 할 때 찬물보다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입속 세균도 줄이고 입 냄새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영동대학 치위생과 연구팀이 내놓은 '양치질 후 헹굼물 온도가 구취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치약의 세정제 성분이 따뜻한 물에서 잘 녹아 양치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입속 세균 막 지수를 낮춰 입 냄새를 줄이는 효과도 관찰됐다.

따뜻한 물에 세제를 풀어 빨래를 하면 찬물에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처럼 양치할 때도 치약의 세정제 성분이 따뜻한 물에 더 잘 녹아 치태가 잘 씻긴다는 설명이다. /박지원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82> 글·그림 박상철

재야운동가 함석헌선생 별세

1989년 2월 4일 독재정권에 투쟁과 민권운동을 공감했던 씨ᄋᆞᆯ의 함석헌선생이 떠났다. 1956년부터 <사상계>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설을 전개했고 5.16군사혁명 직후 한 일 협상 반대 단식, 3선개헌과 국민투표 반대 운동 등을 벌여 군사정권에 저항하였으며 1970년 <씨ᄋᆞᆯ의 소리>지를 펴낸 발행 겸 편집인으로서 사회개혁을 위한 많은 글을 발표했다. 1979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되었으며 1987년 제1회 인촌상을 수상하였다.

함석헌 (1901~1989)

<최소운영수익>

김해경전철 MRG 해결 속도낸다

부산시·경남도 분담비율 결과 나오면 구체적 협의

부산시와 경남도가 약 1000억원을 저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산-김해경전철 민간사업자 최소운영수익(MRG) 문제 해결 방안 찾기에 본격 나섰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달 첫 현안조정회의를 열어 MRG 부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어 MRG 분담 비율 조정을 위해 김해시가 대한상사중재원에 낸 중재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전철 승객 수는 두 지역이 비슷하거나 부산 쪽이 오히려 약간 많은데도 정거장 수를 기준으로 김해와 부산이 6대4의 비율로 MRG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김해시의 주장이다. 김해시는 상사중재원이 MRG 부담 비율을 6대4에서 5대5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지난달 31일 2차 심리를 마쳤으며 한 달 안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결정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시·도와 김해시는 이 결정이 통보되는 대로 국비 지원 요청 등 대정부 활동과 자본 재조달 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MRG 부담 기준을 목표 승객의 76%에서 74%로 낮추고 건설 당시의 이율 6%짜리 금융채를 3~4%의 금융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에 경전철 사업비 가운데 19%(1061억원)만 지원받은 국비를 도시철도 수준인 60%로 상향 소급 지원해달라고 요구에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이 성사되면 국비 지원액을 4684억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국비 부담률은 일반철도 100%, 광역철도 75%, 도시철도 60% 등이다. MRG 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는 방안과 자본 재조달을 추진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물가정보 스마트폰 앱 서비스

부산시는 물가 종합정보시스템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1일 본격 서비스에 돌입했다.

이 스마트폰 앱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필품 30개 품목과 45종의 개인서비스업소 가격 동향을 매주 제공한다.

특히 업종별 최저 가격 위치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편 시 물가 정보 스마트폰 앱은 지난 9월에 개발을 시작해 안드로이드(Android) 마켓에는 등록을 마쳤다. 이 앱을 사용하려면 구글 앱스토어(Play.google.com)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부산시 물가정보망'을 검색하면 된다.

2013년 징병검사 시작 2013년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 대상자들이 신체검사 후 현황을 보고 있다. /뉴시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지원금 240만원으로 인상

부산시는 올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주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틀게 처리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지붕 개량 자재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노후화로 석면가루가 날려 건강을 해치고 생활 환경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슬레이트 지붕을 틀게하는 건물주에게 가구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한도를 240만원으로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이달부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가구로, 구·군 환경(청소)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55)320-0312

사상역에 다문화 광장 갖춘 녹색나눔숲

부산 경전철 사상역 광장에 다문화광장과 산책로 등을 갖춘 '녹색나눔숲'이 조성됐다.

사상구는 산림청 녹색사업단 2012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상어울림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이 마무리돼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경전철 사상역 주변 3366㎡에 직경 30㎝, 높이 7~8m 이상의 느티나무, 팽나무 등 교목 78그루를 심어 시민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구는 사상역 광장에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사상인디스테이션을 건립 중이며, 사상광장로 인근에 명품가로공원을 조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해양경제 산업 육성 박차

시, 미음지구 R&D 센터 8월 착공 등 프로젝트 진행

부산시는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한국해양플랜트기술원 설립, 해양플랜트산업 지원기지 조성,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 건립, 항만물류서비스산업·선박관리산업 육성, 해양수산 R&D 클러스터 구축 등 신해양경제 관련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우선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책으로 363억원을 들여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연구개발특구 R&D 허브단지)에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오는 8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센터는 기자재 R&D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2015년까지 690억원을 투입해 심해 해양공학수조 기반 구축사업을 2015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며 8월 추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을 책임질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융합캠퍼스 내 2016년까지 건립키로 했다.

남구 '민원인 권리헌장' 시행

부산 남구는 이달 1일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민원인 권리헌장'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적극적인 책임 행정 구현과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남구의 친절 역점 시책이다.

주민이 신속·친절·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고,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민원인이 OK 할 때까지 서비스받을 권리 등을 민원인에게 설명해주거나 서면으로 알려준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101 FAX 02)730-1554
사장 편집인 곽영택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151~3
부산광고문의 051)558-2100
독자센터 02)721-9802

서면에 대학병원급 안과병원

'정근안과' 2차병원으로 오늘 재개원… 질환별 전용 수술실 등 운영

부산 서면의 정근안과가 안과 전문 2차 병원인 정근안과병원으로 승격, 4일 재개원한다.

정근안과병원은 부산 롯데백화점 맞은편 서면메디칼센터 1층부터 4층까지 1983㎡ 규모에 안과 전문의 8명을 비롯해 대학병원 수준의 장비와 최신 시설을 갖췄다.

정근안과병원은 승격에 맞춰 정근 라식센터, 엄부섭 망막센터, 백문준 녹내장센터, 백내장센터 등의 질환별 전문 센터를 재정비하고 질환별 전용 수술실, 대기실, 검사실, 치료실, 상담실을 별도 운영한다. 또 승용차 50여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갖췄다.

여에 다음달부터는 부산대학교병원 망막 질환 전문 엄부섭 주임교수를 초빙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안과전문병원과 안과수련병원 지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 치료를 위해 각막절편생성용 펨토 세컨 레이저 장비인 FS200과 시력교정용 엑시머 레이저 장비 EX500을 도입한 것을 비롯해 백내장수술 초음파 유화술 장비, 망막 레이저 치료 장비인 파스칼레이저, 형광 안저 촬영장비, 정밀망막검사 장비, 정밀각막검사 장비인 오큘라이저 등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라식수술을 포함한 시력교정술, 녹내장수술, 망막수술 등 다양한 분야의 안과 질환 치료와 수술 업무가 가능하다.

정근 원장은 "부산 서면지역은 부산을 대표하는 의료 관광지로 수백여 개의 1차 의료기관이 밀집돼 있으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정근안과병원이 개원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망막 질환, 백내장, 녹내장,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 그동안 안과에서 다루기 힘들고 어려웠던 전문 안 질환 치료를 위해 투자와 연구를 아끼지 않겠다"며 "더 이상 어렵게 대학병원을 찾지 않아도 가까운 안과병원에서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희기자 ksh@metrobusan.co.kr

4일 재개원하는 정근안과병원.

고용노동청 장년인턴제 시행

부산고용노동청은 50세 이상 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1인당 최대 710만원을 지원하는 장년 인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년인턴제는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등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부산지역은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3개 기관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이날부터 중소기업과 장년 미취업자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 자격은 취업자의 경우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된다.

장년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턴 기간 최대 4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인턴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 징역 6년

추징금은 1억4600만원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지난 1일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세(65) 전 부산대 총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600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부산대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를 BTO로 추진하면서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시공사인 '효원 E&C'의 구모(50) 대표로부터 1억46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효원 E&C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산대가 기성회비 등으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맺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부산대가 400억원대의 빚을 떠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전 총장은 2011년 4월 박남철(56) 당시 부산대병원장과 공모해 병원 자금 18억원을 효원 E&C의 대출금 이자 지급에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텅 빈 승강장서 택시 기다리는 승객 | 호남권 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 거부에 반발, 1일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부산지역 법인, 개인택시 2만 5000여 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했다. 사진은 부산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시민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환율 대응 무역보험 설명회

부산상공회의소는 4일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환율 대응 전략 및 무역보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과 엔화 약세로 지역 기업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올바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와 함께 현장에서 무역보험 컨설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무료.

문의 051)990-7071

'바다 속 나전칠기 세계' 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은 올해 첫 특별전으로 '바다 속 나전칠기 세계'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나전칠기보존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해양자연사박물관 제1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특별전에서는 바닷속 세계를 보다 더 사실적으로 묘사한 '수중도' 작품이 선보이는 등 나전칠기로 제작된 100여 점의 생활 소품을 통해 신비한 바닷속 세계를 볼 수 있다.

박물관 측은 특별전시 기간 중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현장에서 선착순 50명씩을 대상으로 '나전칠기로 바다 속 꾸미기' 체험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매주 금·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나전칠기 장인이 작품 해설을 하고 나전칠기 작품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교체 전시할 계획이다. 문의 051)553-4944

오바마 "내 새 취미는 스키트 사격"
전문가 "사진 보니 초보자인 모양"

강도 높은 총기 규제 대책을 추진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사격이 새로운 취미이며 스키트 사격을 한다"고 답했다. 총기를 규제하더라도 사냥과 스포츠까지 무조건 부정해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총을 쏴본 적이 없을 것이란 비판이 일자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총을 발사하는 장면(사진)을 공개하고 지난해 8월 4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클레이 사격을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는 트윗을 날렸다.

하지만 미국스키트사격협회(NSSA) 관계자는 "사진와 사격 자세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사격을 많이 해보지 않은 초보자"라고 꼬집어냈다. /이국명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中 최악 스모그는 저질석유 때문

<휴대전화의 북한표현>

"손전화 흔합네다"

평양 20~50세 시민 60% 사용…외국인에 심카드 판매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도 휴대전화 바람이 불어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주간지 야주주간 최신호는 평양에 사는 20~50세 시민 중 6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아이폰과 노키아 제품 등 스마트폰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7일부터 세관에 휴대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만 하면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는 외국인용 심(SIM) 카드도 판매 중이다. 가격은 2개월에 100유로(약 14만 9000원)로 통화 시에는 양쪽 다 돈을 내야 한다. 통화료는 분당 0.2유로다.

이에 따라 야주주간은 중국 관광객들이 평양이나 묘향산 등 내륙지방 여행 때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급격히 늘고 있다.

북한과 이집트의 합작 휴대전화 업체인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는 2010년 10월 43만 명에서 2011년 9월에는 80만 명, 2012년 2월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야주주간은 20~50세 평양 시민 중 60%가 개인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며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북한 인구의 9.4% 수준인 220만 명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lunlee@metroseoul.co.kr

"핵실험 자제" 北대사 세 번 부른 중국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핵실험 강행 방침을 천명한 이후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수차례 불러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북중 무역의 주요 항구인 단둥·다롄 등지에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북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달 25일 사설에서 북한이 다시 핵실험에 나선다면 중국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대북 원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으로 이날 급히 출국했다. 임 본부장은 5일까지 베이징에 머무르면서 중국의 당국자들을 만나 대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국명기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무 한그루, 공기 한모금에도
하는 마음이 닿으면
애경

KOSDAQ
504.20
505.55
502.80
503.67
503.31
-0.36
1/28 1/29 1/30 1/31 2/1

Nikkei (일본)
11191.34 (+52.68)
Hang Seng (홍콩)
23721.84 (-7.69)
Shanghai (중국)
2419.02 (+33.60)
Dow Jones (미국)
14009.79 (+149.21)

EXCHANGE RATE

통화	환율
달러	1095.00
엔(100)	1186.41
유로	1492.81
위안	175.83

임금수지 적자 최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온 급여소득보다 국내 사업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이 두 배가량 많았다.

3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급료·임금 수입은 6억4710만 달러로 2011년(7억5140만 달러)보다 1억1000만 달러(13.8%)가량 줄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은 11억4890만 달러에 달했다. 전년보다 2.8%가량 줄었지만 수지 적자폭은 4억3110만 달러에서 5억180만 달러로 16.4% 급증했다. 2011년 최대 적자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급여·임금 수지는 2009년(-5300만 달러) 이후 4년 연속으로 적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세계 경기침체로 외국에서 일하는 국내 근로자의 수가 줄고 급여 등 처우가 나빠졌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급료·임금 지급액은 2010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임금수입 실적은 10년 전인 2003년 7억3210만 달러보다 되레 줄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같은 기간 9730만 달러에서 11.8배나 커졌다. /박상훈기자

보조금 더 키운 영업정지

순차적 번호이동 중지 탓 3사 '고객 돌려막기' 경쟁 더 치열

이동 3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줄 알았는데 되레 혜택이 커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 듯 영업 중인 이동사가 앞다퉈 마케팅을 강화한 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현재 영업정지 중인 SK텔레콤에서 넘어오는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영업정지가 풀린 LG유플러스 출신 고객보다 SK텔레콤 고객을 끌어와야 LTE 시장에서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물론 보조금 차별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KT는 2주 뒤 영업정지가 풀리는 SK텔레콤의 막강한 자금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본사 차원의 원칙은 아닌 것 같다. 매출 축소에 위기감을 느낀 일부 영업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출시 되자마자 '5만원 폰' 된 갤럭시 그랜드

덩치가 커진 보조금은 지난주 출시된 삼성 '갤럭시 그랜드'를 '5만원 폰'으로 만들었다. 이 기기의 출고가가 72만6000원인 만큼 7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풀었다는 얘기다.

최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블로그 댓글 등에 특정 이동사와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내용의 문자나 광고가 부쩍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갤럭시노트Ⅱ 어도 공짜'라는 판매 문구가 붙은 광고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을 정도다.

◆추가 벌금보다 버는 돈 더 많아-근절 어려워

제재를 받고 있는 이동사가 이처럼 틈번 경쟁를 자자 제재를 경우 추가로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는 벌금보다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동사의 이런 행태를 근절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T가 영업정지를 당할 때 SK텔레콤이 어떤 '복수의 칼'을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KT는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박성준기자 zen@metroseoul.co.kr

잦은 폭설 영향 손보사 영업이익 급감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추락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메리츠화재 등 주요 5개 손보사의 2012 회계연도 3분기(2012년 4월~12월) 영업이익은 총 2조64억원으로 전년(2조113억원)보다 5.1% 감소했다.

메리츠화재의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459억원으로 지난해(1747억원)보다 20% 가까이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현대해상이 3967억원(8.0%↓), 삼성화재가 7612억원(6.0%↓), LIG손보가 2450억원(0.8%↓)의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 겨울 잦은 눈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살펴보면 삼성화재 107%, 메리츠화재 104.1%, 동부화재 102.5%로 100%가 넘었고, 현대해상과 LIG손보도 각각 99.5%, 98.1%로 100%에 육박했다. /김지성기자

로노삼성차 "귀성길 무상점검 받으세요" 르노삼성자동차가 8일까지 전국 462개 서비스점에서 설 연휴를 맞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도 8일부터 9일까지는 하행선, 10일부터 11일까지는 상행선에서 무상 서비스를 운영한다. 경부선은 죽전 휴게소, 영동선은 은곡 휴게소, 남해고속도로는 진영 휴게소, 서해안 고속도로는 대천 휴게소에서 점검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차 제공

지난달 서울 아파트거래 2006년 이후 최저

1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최저 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았다.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래 최악이었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웠다.

3일 부동산114와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157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실거래가와 관련된 부동산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직전 최저치인 2008년 11월 1269건보다 적어 주택시장 한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 1년새 653건→46건

1월 구별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면 강남구가 110건으로 작년 12월 500건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작년 12월 653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던 송파구에선 이 기간 1월 48건 거래에 그쳤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390건에서 47건으로 급감했고, 작년 12월에 가장 많은 826건이 거래된 노원구의 1월 아파트 거래량은 90건에 불과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는 전세 가격 상승, 월세 강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김지성기자 btoyhand@

급이 다른 집전화 '스마트홈 폰 HD', 이유 있는 고공행진

휴대폰이 보급되어 감소세를 보이던 집전화가 최근 스마트 기능을 더하며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KT에 따르면 KT 집전화인 '스마트홈 폰 HD'가 출시 직후부터 가파른 판매 추이를 보이며, 최근에는 하루 판매량 2500건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홈 폰 HD'는 KT가 출시한 스마트 기능을 더한 집전화로서 망내 3000분 무료 음성통화의 저렴한 요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olleh All-IP 기반 HD 통화, 홈시큐리티, 엔터테인먼트, 올레TV 나우, 생활 편의 등 가정 내 필요한 모든 스마트 서비스를 5.8인치 대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 30·40 주부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디지털 음향기기 전문기업인 아이리버와 함께 제공하는 스피커 독(거치대)은 경쟁사 대비 최고 출력(14w)을 자랑한다. 빵빵한 음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심뿐 아니라 자영업자 및 음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니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씨는 "'스마트홈 폰 HD'의 기능 중 그날의 표정, 날씨, 기분 등에 따라 나에게 딱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는 라이프자키와 더불어 감동을 더해주는 빵빵한 스피커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집전화가 반복적인 일상생활에 생기를 줘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요즘 뜨는 KT 집전화 '스마트홈 폰 HD' 오디오 기능 탁월

olleh All-IP 기반…5.8인치 대화면으로 CCTV·오락 서비스

5년 차 주부 이선미(35)씨는 최근 스마트 집전화인 '스마트홈 폰 HD'를 구입했다. 구매를 결심한 이유는 오디오를 대용할 수 있는 스피커 독 때문이지만 생생한 통화 품질과 저렴한 통화요금 덕에 스마트 집전화의 풍부한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에 더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집의 안전을 지켜주는 CCTV 기능, 다양한 편의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어 요즘 집전화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KT 집전화 '스마트홈 폰 HD' 단말기가 스피커 독 거치대에 놓여진 모습.

이러한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1차로 공급된 스피커 독 물량이 조기 소진되자 KT는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2월 1일부터 2차 스피커 독 예약 접수를 실시한다.

'스마트홈 폰 HD' 예약판매

KT는 스마트홈 폰 HD에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2월 1일부터 2차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스마트홈 폰 HD 가입 문의와 상세 내용은 올레닷컴(www.olleh.com) 및 스마트홈 고객센터(080-237-7979)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광화문 올레스퀘어를 비롯해 전국 주요 올레 플라자 및 올레 매장, 올레홈 매장(APT단지 내 매장)에서 서비스 체험·가입이 가능하다.

KT 박혜정 Marketing본부장은 "스마트홈 폰 HD는 olleh All-IP 기반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선보이는 스마트 집전화로서 출시 한 달도 되기 전에 일평균 2500건 이상의 판매율을 보이는 등 그 열기가 매우 뜨겁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홈 폰 HD, 키봇2, 스마트홈 패드 등 olleh All-IP 서비스와 단말을 통해 새롭고 편리한 스마트 홈 라이프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입학·졸업…시작의 순간 갤럭시 카메라 CF 끌리네

삼성전자가 입학·졸업 시즌을 맞아 갤럭시 카메라의 새로운 광고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번 광고는 세계 최초로 LTE를 지원해 카메라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연 갤럭시 카메라의 두 번째 광고 시리즈로,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LTE로 공유하는 새로운 사진문화 시작의 순간을 입학과 졸업을 배경으로 표현했다.

미국 LA와 국내를 오가며 촬영된 광고는 다양한 사람들이 갤럭시 카메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날개를 펼치는 시작' '헤어짐이 아닌 시작' '빛의 속도로 시작' 등 자신만의 시작의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고 이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스토리와 감각적인 영상미가 더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지난 8월 독일 IFA 2012 에서 공개된 갤럭시 카메라를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해 화제가 되었던 가수 강진표가 내레이션을 맡아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더했다는 평이다.

삼성 갤럭시 카메라는 광고 론칭을 기념해 삼성전자 S 데이 갤럭시 카메라 CF 공유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고 감상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명에게는 삼성 갤럭시 카메라를, 20명에게는 CGV 영화관람권(1인 2매)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박성훈기자

61~75세 고령자 전용 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고령자의 암보험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가입이 어렵고 특화 상품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고령자들의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 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80)951-8585

/김학철기자

안드로이드폰 '트래픽 굴욕'

애플보다 판매량 3배 많지만 인터넷전송량 3분의 1

스마트폰을 피처폰처럼 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처폰 대비 2배 이상 비싼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셈이다.

3일 미국의 인터넷 시장조사업체 넷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모바일 제품 운영체제(OS)별 인터넷 전송량(트래픽) 조사 결과 아이폰·아이패드에 탑재된 iOS의 전송량이 전체의 60.56%를 차지했다. 반면 안드로이드 OS는 전체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24.51%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 업체의 집계에 따르면 아이폰·아이패드의 전송량 점유율은 2009년에 39.02%를 기록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안드로이드의 전송량 점유율도 2009년 2.59%에서 시작해 2010년 7.35%, 2011년 15.31%, 지난해 21.58%로 늘었다.

안드로이드폰의 판매량이 아이폰의 3배 이상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정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중장년층이 익숙한 브랜드인 삼성, LG 등의 안드로이드 제품을 주로 구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metro opinion

민생 책임지는 임시국회 기대

오늘의 시선
현이몽
<칼럼니스트>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다음달 5일까지 열리게 될 임시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내각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과 직결된 여러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민생 관련 법안과 의원 겸직 금지 등 정치쇄신 법안 등도 처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과 쌍용자동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과제다. 시간이 빠듯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 택시법, 쌍용차 사태 관련 등 현안 해결을 위해 3개의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정치쇄신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 예산·재정개혁특위 등 4개 특위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경우 4일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상정, 5일 공청회, 14일 전체회의 의결이라는 일정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주요 현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순항의 발판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전망이 꼭 밝은 것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반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요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조직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특히 '공룡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업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위상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등 전반적으로 업무 조정에 들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는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 등도 찬반 논란이 큰 분야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내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자연히 뒤로 밀리게 된다. 정상적인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권 내려놓기 등 쇄신을 약속한 정치권이 정치쇄신특위와 예산·재정개혁특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치개혁안을 입법화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의원 연금 폐지,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세비 30% 삭감 등 정치쇄신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 새 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해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씻고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날지 지켜볼 일이다.

황혼이혼, '사회적 풍조'로만 넘길 일이 아니다

청론탁설
유병필
<언론인>

어느새 우리 사회에 황혼이혼이 심각한 수준에 되어 버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젊은층의 이혼율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반면 결혼 20년 차 이상 중장년층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황혼이혼 비율은 지난 20년 사이에 19.6%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에는 5.2%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2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의 오류로 어느 정도 과장됐다고 해도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혼율이 OECD 가맹국 가운데 제1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판에 이 같은 현상을 보여 충격적이다. 황혼이혼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 부정 △가정폭력 △성격 차이 △소통 부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어에는 지금까지 자녀들 양육 문제로 서로가 잘 참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핵가족화로 이러한 '제동장치'가 풀어졌다는 것이다. 이혼을 제기하는 쪽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황혼이혼 급증은 여권 신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갈수록 늘어나는 황혼이혼은 새로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노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판국에 2025년에는 3가구 가운데 1가구가 독거노인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기치 않은 재앙이 다쳐올지도 모른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저 사회적인 풍조로 보고 넘길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황혼이혼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있겠지만 우선 당사자들이 이혼 이후의 생활을 보다 심도 있게 인식해야 한다.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깊은 관심을 지닐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계에서도 황혼이혼을 줄이도록 '가정 지키기'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복지정책 운용에 있어 황혼이혼을 자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 지자체 또한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양 강좌를 열 필요가 있다. 여기에 훈훈한 이웃의 정서가 살아나 앞장서서 도우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토프리즘 김동성·오노·량양의 통합스포츠체험

강원 강릉실내빙상장에서 2일 열린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쇼트트랙 통합스포츠 체험 행사에서 김동성(왼쪽), 오노(가운데)와 량양이 지적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계주 경기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기분 나쁘게 하는 대형마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박민정(41·주부)

주말에 최근 오픈한 광명 코스트코에 다녀왔다.

국내 최대 규모라는 소문에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지만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여서 자주 이용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다.

도중 마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매장에 많이 놀랐다. 게다가 매장이 어찌나 넓은지 그 많은 사람이 몰려서도 이동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였다. 다만 소비자를 배려하는 느낌을 받을 수 없어서 아쉬웠다. 먼저, 코스트코에 들어가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몰려드는 차량 탓에 도로에서부터 줄을 섰기 때문이다.

건너편에 임시 주차장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마음 급한 운전자들이 도로에 불법 주차를 했지만 어디 구청 단속요원들이 나타나 딱지를 뗐다. 기다림 끝에 도착한 주차장은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쇼핑을 하고 난 뒤에는 출구 쪽에 있는 한 직원에 영수증과 카트에 있는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코스트코 회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곳은 입구에서도 회원증을 요구하며 회원 여부를 확인한다.

그들의 설명대로라면 두 번씩이나 이를 체크하는 셈인데, 도난품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버젓이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지 않나. 물건 훔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무척 기분이 나빴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대형 할인점이 실시한 월 2회 휴무 범죄안에서 끝까지 오리발 내밀어 버렸던 장본인이 코스트코였다.

소비자와 동업자 모두 기분 나쁘게 하는 코스트코는 반성해야 한다.

사원의 도시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시엠 립, 타일랜드를 제압한다는 뜻이다. 캄보디아와 타일랜드의 사이에 벌어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한때는 바로 그 타일랜드의 수중에 들어가기도 했던 이 오래된 도시는 오늘날 '앙코르와트'의 입구로 더 유명해져 있다. 밀림 한가운데에 세워진 거대한 사원은 12세기 작품이다.

애초에 힌두교 사원으로 세워졌다가 이후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던 앙코르와트는 16세기 이후 쇠락하면서 용기처럼 버려지기도 했다. 그러니 지금은 동남아 최빈국을 먹여 살리는 자산이 되고 있다. 거대한 나무숲을 지나 탁 트이게 펼쳐지는 사각의 공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이 사원의 모습은 인간의 모든 상상을 순식간에 압도해버리고 만다.

앙코르와트라는 단어는 "사원의 도시"를 의미한다고 한다. 인도대륙의 힌두교와 불교의 언어 산스크리트와 팔리어가 전파되어 만들어진 이름이다. 도처에서 보게 되는 농밀한 부조(浮彫)와 장엄한 크기의 불부처상, 그리고 기하학적 설계는 견줄 이가 있을까 싶은 충격을 준다.

종교가 만들어낸 이 걸작은 한편으로는 정신적 웅장함에 놀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동원되었을 사람들의 고역을 동시에 떠오르게 한다. 그러니 사원의 존재는 그 도시의 삶을 끊임없이 윤리적으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음을 알게 된다. 약자들에 대한 갈탈을 지탄하며 신 앞에서 겸손하라는 깨우침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갈구와 통한다.

인류 문명사에서 종교의 권력이 처음 약속과는 달리 인간을 짓밟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원은 만중들의 공격 목표가 되어왔지만, 사원이 있는 도시는 그 현장을 품격 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내면의 사원을 짓게 했다.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이나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성당,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을 비롯해서 고대 그리스 도시 유적의 신전들이 있는 도시는 모두 명칭은 다르지만 그런 까닭에, 본질적으로 앙코르와트다.

하지만 현대의 도시는 더는 사원의 공간이 아니라 자본의 정체다. 사원도 자본의 욕망에 시보잡혀 있다.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은 쓸쓸하거나 방황하든지 아니면 타락해 있다. 윤리적 깨우침과 위로를 줄 앙코르와트가 사라진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제압하려는 입구에 서성이고 있는 것일까? 또는 제압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사원의 아름다움을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의 비극이다.

수입차는 강남스타일? 공식 깨졌다

지난해 지역별 신규 등록대수 분석… 강남3구 주춤하고 강서·강북 급증

서울에 등록된 일반 승용차 중 수입차의 비율이 10%에 근접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의 수입차 매장 앞을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지난해 10%를 넘어선 가운데 수입차 대중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나왔다.

서울 강서·강북 지역의 수입차 등록 비중이 급증한 반면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3구'의 수입차 등록은 크게 줄었다.

즉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이미 수입차를 다들 사서 추가 구매가 둔화됐고, 중산층 거주지에서는 신규 소비가 왕성했다는 얘기다. '수입차=부자의 전유물'이라는 공식이 '수입차=국산차나 다름없는 차'로 바뀐 셈이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2012년 브랜드·구별 등록 자료에 따르면 그간 수입차 등록이 많지 않았던 금천·서대문·동작 구로구의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금천구는 194대에서 332대로 71.1%나 증가했으며 서대문구, 동작구도 각각 54.9%, 54.0% 증가했다. 구로구는 47.4%, 강북구는 45.2%, 중랑구는 43.3%나 수입차 등록이 늘었다.

중구는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1057대에서 1005대로 4.7% 줄어들면서 신흥 부촌으로 꼽히는 용산구에 4위 자리를 내줬을 뿐 아니라 영등포·양천·마포구에도 밀렸다.

반면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지난해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1만926대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전체 신규 등록 수입차의 40.5%로 2011년에 44.7%였던 것과 비교하면 4.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도 강남3구는 10.9%로, 서울 전체 증가율(22.3%)에 미치지 못했다.

수입차 관계자는 "젊은 층과 개인으로 고객층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이런 잠재 고객이 많은 지역에 최근 1~2년간 전시장을 집중적으로 냈다"며 "등록 증가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대부분 신규 전시장이 생긴 곳"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3000만~4000만원대 가격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쏘나타(풀옵션)에서 그랜저를 살 수 있는 돈이면 BMW 3시리즈, 아우디 A4, 벤츠 C클래스는 물론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푸조 등의 간판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한 토종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새로운 '성능 스펙'을 내세워야 할 처지다.

/박상훈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독창성보다 실현 가능성 우선

지난해 열린 제3회 본아이에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입상한 수상자들의 모습

4회 본아이에프 아이디어 공모전… 28일까지 접수

외식업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제4회 본아이에프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해보자. 프랜차이즈 기업(본죽·본비빔밥·본도시락)인 본아이에프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28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음은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 공모전 취지는.

▲고객이 본죽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공모전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의 아이디어를 직접 활용하기 위해 기획했다.

– 심사 절차는.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시장성, 논리 및 완성도를 심사한다. 1차 예심은 본아이에프의 각 브랜드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디자이너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2차 본선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를 통한 참가자의 설득력과 논리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시상 내역은.

▲대상에는 상금 3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되며 각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 본상은 상금 50만원과 상장을 받는다.

– 특히 당부할 말은.

▲타인과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판명되면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너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보내주길 바란다.

/김용현기자 unie[illegible]@metroseoul.co.kr

주간 대외활동

▲Like Puma 6TH BEAT

푸마에서 20대 소셜커뮤니케이터 12명을 모집한다. 선발자들에게 매월 신제품을 증정하며 푸마 인턴십 혜택도 있다. 19일까지 페이스북(www.facebook.com/pumakr)에서 접수 가능하다.

▲바닐라코 서포터즈 6기

화장품 브랜드 바닐라코에서 뷰티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18일까지 모집한다. 서포터즈에게는 신상품 체험 기회 등이 주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anilaco.com)를 참고하면 된다.

▲오리진스 대학생 마케터 1기

에스티로더 소속 화장품 브랜드 오리진스에서 대학생 마케터를 15일까지 모집한다. 홈페이지(www.origins.co.kr)에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LOVE NARS 나스 서포터즈 2기

뷰티 브랜드 나스에서 패션·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일반인 여성을 모집한다. 다양한 선발 혜택이 있으며 13일까지 홈페이지(www.narscosmetics.co.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주간 공모전

상금 받고 장관과 악수까지

▲시민체감형 U-City서비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U-City 아이디어와 활용 사례 UCC를 공모한다. 대상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28일까지 홈페이지(u-cityservice.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장경제발전 연구논문 및 아이디어

대학(원)생과 일반인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기획재정부장관상이 수여된다.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e메일(e[illegible]@[illegible].or.kr) 또는 우편·방문 접수할 수 있다.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주제의 논문을 공모한다.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누구나 20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최우수상에게는 장학금 300만원과 외교통상부장관상이 수여된다.

▲2013 대학생 카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2년제 이상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래형 자동차 디자인을 공모한다. 대상에게 상금 300만원과 지식경제부장관상이 주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idp.or.kr)를 참고하면 된다.

최고 광고기획자 꿈꾼다면

▲자모 UCC CF

기발한 자모의 효능을 재치 있게 표현한 광고 UCC 공모전으로 참가 자격에 제한이 없다. 대상에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다음달 10일까지 페이스북(www.facebook.com/jamowhales)에서 응모할 수 있다.

▲치킨마루 '나는 CF 모델이다'

치킨 전문점 치킨마루의 송송파 TV 광고 공모전이다. 일반인 누구나 28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에게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hickenmaru.co.kr)를 확인하면 된다.

▲Dream Cacao 광고컨셉 아이디어

롯데 드림 카카오(Dream Cacao) 광고 영상을 본 후 떠오른 기발한 광고컨셉트 아이디어를 받는다. 대상 수상자는 상금 100만원을 받으며 17일까지 홈페이지(www.dream-cacao.c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확대 프로젝트

서울 소재 대학의 마케팅 동아리와 연합 동아리가 참가 대상이다.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관련 정보는 주르넨생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www.jrufound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r bag

'남자가 사랑할 때'로 복귀

채정안이 MBC 수목극 '남자가 사랑할 때'로 2년2개월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그는 극중 태상(송승헌)이 속한 조직 보스의 여인이지만 훗날 태상과 사랑에 빠지는 백성주 역을 맡았다. 태상을 사이에 두고 미도(신세경)와 삼각관계를 펼친다. '적도의 남자'를 쓴 김인영 작가와 '환상의 커플'을 연출한 김상호 PD가 손잡은 이 작품은 4월 중 첫 방송된다.

감성 발라드곡 '없다' 발표

가수 솔비가 발라드 '없다'를 발표했다.

신곡은 신화·카라·소녀시대의 음반 작업에 참여한 작곡가 김진환이 만든 것으로, 연애의 후유증과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끝난 사랑의 허무함을 표현한 노래다. 솔비는 방송·그림 전시·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발표한 댄스곡 '오뚜기'에 이어 발라드로 이미지 변신을 노린다.

첫 솔로 대만·일본 차트 정상

JYJ 김재중이 첫 솔로 앨범이 대만과 일본 음악차트 정상에 올랐다.

미니앨범 '어이'는 대만 파이브 뮤직의 한국 앨범 판매차트 1위, 일본 음반 판매 체인인 신세이도의 앨범 주간 종합차트 1위를 차지했다. 소속사는 "일본 타워레코드 매장에는 전용 판매대기 등장해 앨범이 빠르게 판매되며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고 밝혔다.

떡국 공약 '800그릇' 선물

류승룡이 박스오피스 1위 기념으로 떡국 800그릇을 기부했다.

영화 '7번방의 선물' 출연진은 2일 무료급식소에 떡국을 전달하고 직접 배식에 나섰다. 앞서 류승룡은 영화 제작보고회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하면 떡국을 대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현재 '7번방의 선물'은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중이다.

배우 윤은혜(29)는 상큼한 단발머리를 하고 한층 밝아진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MBC '보고싶다' 속에서 늘 힘든 표정을 짓던 수연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항상 연기력 논란이 있었던 배우였기에 시청자들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전과 다른 여유가 느껴졌다.

'보고싶다' 끝낸 윤은혜

넓혔다 연기 스펙트럼 생겼다 또다른 여유

수인 역 받아 대사 적지만 깊은 멜로 '윤은혜의 재발견'
영화계 러브콜 늘어 약골이라 액션하려면 최소 2년

#이 작품은 내 인생 전환점

이번 작품은 그에게 새로운 도약점이나 마찬가지다. 적은 대사로 깊은 멜로 연기를 소화해 '윤은혜는 안 된다'라는 대중의 편견을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어렸을 땐 로맨틱 코미디 이미지가 굳어지는 게 무서웠어요. 실제로 차기작을 선택할 때 방해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 나이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생각으로 버텼죠. 수연이는(한국나이로) 삼십대가 된 윤은혜가 새로 얻은 연기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해요."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첫사랑과 행복해지는 결말을 두고 일부 시청자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해피엔딩도 만족스럽다.

"정우 역의 유천이가 '멋지게 죽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럼 수연이는 어떻게 살라고!'라며 짐난스럽게 반대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치유와 위로에 대해 이야기한다라도 결말이 나쁘면 실제로 그 상처를 입은 분들께 더 안 좋은 상황을 남길 것 같았어요. 수연이만큼은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1년 전만 해도 '연하는 남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박유천·유승호 두 연하 배우와 함께하면서 '이제는 연예와 연기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유)승호가 아홉 살이나 어리다 보니 제가 먼저 다가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배우와 호흡을 맞춰 본 적이 별로 없다'면서 여배우의 일정을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라면 군대를 빨리 다녀오고 싶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른 세상을 느껴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누나 언제 오실 거죠?'라고 대뜸 물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하하."

#경쟁사극은 아직 부담

2006년 드라마 '궁'으로 연기생활을 시작해 '커피프린스'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걸음마 단계에서 지나치게 좋은 경험을 한 것이 배우로 성장하는 데 도리어 아쉬운 점이 됐다.

"어렸을 때 너무 특별한 작품을 만났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커프'처럼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등 부수적인 것에 신경을 더 쓰게 되고요. 이 생활은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활동이 종횡무진이라 차기작 욕심도 남다르다. 관계자는 "'보고싶다'를 계기로 영화계 러브콜이 부쩍 늘었다"며 흐뭇한 자랑을 늘어놨다.

"몸이 약한 편이라 액션을 하려면 근육 만드는 데만 최소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궁'으로 데뷔했지만 아직 정통 사극은 맞지 않는 옷이에요. 일부러 연한 건 아닌데 제가 가진 매력이 현대극에 더 맞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한 뒤에 차근히 풀어갈 생각입니다."

예능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넌지시 물었다. 과거 'X맨' 커플로 함께 활약했던 김종국이 출연 중인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 가장 먼저 거론됐다.

"기회가 되면 출연하고 싶은데 너무 그쪽(김종국과 커플)으로만 몰고 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나갔다가 십 년 동안 또 그 얘기 나오면 어떡해요. 하하하.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던 오빠들이고 워낙 친하다 보니 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나긴 거나 다름없는데 출연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사진/디에이스컴퍼니 제공 디자인/박선영

올레마켓 게임이벤트

매주 진행되는 공짜 선물 이벤트!!

올레마켓 최신 무료게임!

2월 **01**일 **OPEN GAME**

최신,추천게임과 함께하는

올레마켓 경품파티

이벤트기간 2013 02 01~ 2013 02 15 ※ 다운로드만 받아도 이벤트에 참여 됩니다

엔드 오브 다크니스 위즈 커뮤니케이션

스타벅스
카라멜 마끼아또 tall
370개

강호 난세전 아이프리 스튜디오

할리스
바닐라딜라이트
408개

플래티넘 디스크 루노 소프트

커핀그루나루
라즈베리모카(S)
333개

피싱 어드벤쳐 모리 소프트

던킨도너츠
도너츠 6 pack
277개

소환전쟁 테스팅 소프트

뚜레쥬르
프리미엄 녹차케익(대)
111개

'베를린' 흥행속도 빠름~ 빠름~

상영 5일여만에 200만 돌파 역대 1~2월 개봉작 중 '최고'

첩보액션 대작 '베를린'이 극장가의 비수기로 일컬어지는 역대 1~2월 개봉작들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몰이 속도를 과시하고 있다.

3일 오전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베를린'은 전날 하루에만 63만7046명을 불러모았다. 전야제 형식으로 개봉된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2일까지의 누적 관객 수는 168만7684명으로, 상영 닷새하고 반나절 만인 3일 오후 전국 관객 200만 고지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영화의 투자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 측은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2위로 상영 나흘 만에 200만 고지를 밟은 '도둑들'과 '괴물'이 여름 성수기인 7월에 개봉됐던 것과 비교하면 '베를린'의 흥행세도 이에 못지않다"고 자축했다.

휴먼코미디 '7번방의 선물'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베를린'의 등장에 살짝 기가 꺾였지만, 2일 하루 동안 56만8253명을 보태 지난달 23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수가 367만8263명에 이르렀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과 '박수건달'은 각각 10만5193명과 5만7300명으로 일일 박스오피스 3·4위에 올라, 한국 영화 네 편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한 배급 관계자는 "서로가 서로의 흥행을 돕는 한국 영화들끼리의 시너지 효과가 연초 극장가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못다 핀 꽃 한송이'로 15세 김명주 활짝 피다

엠넷 '보이스 키즈' 우승 차지

엠넷 '보이스 키즈(보키)'가 15세 김명주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일 방송된 파이널 라운드는 시청률 4.22%(AGB 닐슨미디어리서치)로 자체 최고 기록 경신과 동시간대 케이블 방송 시청률 1위를 모두 달성했다. 애절한 목소리로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소화한 김명주는 "'보키'는 가수의 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며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퍼포먼스, 인성까지 많은 점을 가르쳐주신 양요섭 코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승자의 음원 발매와 차후 가수 활동에 대한 우선권은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에 돌아간다.

이 프로그램은 통상 2인으로 진행되는 배틀 라운드를 3명으로 확대해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을 배려하는 등 경쟁보다는 어린이 재능 육성에 초점을 맞춰 인기를 끌었다.

엠넷 김기웅 국장은 "'보키' 시즌1의 성공에 힘입어 시즌2는 기존 5회에서 대폭 확대 편성된다. '보이스 코리아'와 번갈아가며 진행될 것"이라면서 "방송 횟수를 늘리더라도 아이들이 무대에서 겪을 중압감과 방송시고 등을 대비해 생방송 경연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선기자 kvan@

양요섭(왼쪽) 코치와 김명주

정혜영 '구가의 서'로 안방 컴백

배우 정혜영이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2년6개월 만에 드라마에 컴백한다.

그는 MBC 새 월화극 '구가의 서'에 춘화관 행수 기생인 천수련 역으로 출연한다. 천수련은 문과 예를 두루 겸비한 기생으로, 손님들이 춘화관 앞에 줄을 설 정도로 명성이 높은 인물이다. 정혜영은 4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박수건달'에서 모성애를 자극하는 연기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 연기 변신에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기자 suno@

'동안 여배우 A'의 비밀은 카메라

▶"주름 및 홀굴 하나까지도 제약"

미녀 배우 A도 세월을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A는 나이를 잊은 외모와 톡톡 튀는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 연예계 관계자는 "A의 늘어진 턱선과 손등에 주름 때문에 카메라 앵글 하나까지도 제약을 받는다"면서 "A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은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기도 잘하면서 상대를 끌어줄 수 있는 배우는 30대 중후반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쓸 만한 젊은 여배우들은 진짜 연애하느라 바빠서 작품도 안 한다"며 좁아진 선택폭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녀배우 B는 스캔들의 여왕

매 작품마다 상대 배우와 핑크빛 스캔들에 휩싸였던 미녀배우 B가 새 작품에서도 염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는 B가 소문난 '미남 킬러'답게 미남 배우 C에게 적극 대시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는지 홀로 속만 태우고 있다고 하네요.

▶스포츠스타 D 아내 '쥘쥘내조'

스포츠 스타 D의 아내가 남편의 계기는 뒤에 받쳤고 나섰습니다. 평소 비답발로 유명한 D의 아내는 남편이 은퇴 후 이렇다 할 할 자리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지신의 인맥을 총가동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술자리까지 주선하며 남편 알리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정작 D는 숫기 없이 아내의 뒤에 조용히 숨어 있어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는 지인들은 현역 시절 D의 거친 플레이가 그립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정우가 폭진의 된 사연

하정우가 '베를린'에서 아내로 호흡을 맞춘 전지현의 봉대 감는 실력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관객과의 대화에 나선 하정우는 "다친 남편을 아내가 치료해주는 장면에서 전지현씨가 너무 성의 없이 붕대를 감아줘 날 좀비로 만들었다"고 폭로해 웃음바다로 만들었는데요. 류승완 감독은 "상체 노출을 앞두고 하정우씨가 열심히 운동해 가슴 근육이 매우 발달한 상태였다. 붕대가 와 흡사했던 이유"라고 거들어 더 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음식 맛있게 먹기로 소문난 하정우의 먹는 장면이 거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하정우가 연기한 표종성이 외로운 캐릭터이므로 음식을 맛없게 먹어야 하는데, 이번 장면에서는 너무 맛있게 먹어 할 수 없이 편집했다"고 밝혀 역시 배꼽을 빠지게 했습니다.

거침없는 씨엔블루

음반·방송 점수 1위 이어 프로스펙스 모델도 꿰차

씨엔블루가 새해 초 음원·음반·방송·광고계를 평정하고 있다.

새 음반 '리 블루'로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차트 1위를 차지한 이들은 1일 KBS2 '뮤직뱅크'에서도 타이틀곡 '아임 쏘리'로 정상에 등극했다. 컴백과 함께 끌어낸 앨범을 입증하듯 음반·음원·방송 점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1위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특히 씨엔블루는 이번 앨범의 전곡을 멤버들의 자작곡으로 채워 의미를 더했다. 또 음악 방송에서는 이례적으로 올 라이브 밴드 연주를 선보여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인기를 반영하듯 씨엔블루는 피겨 퀸 김연아가 활약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 W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리더 정용화는 "평소 김연아 선수의 팬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광고 모델이 돼 신기하고 행복하다. 올 한 해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씨엔블루는 국내 밴드로는 최초로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다.

/유순호기자

●'돈의 화신' 아찔한 러브신 등 선정성 논란 출발 ●'야왕' 2~4회 19세 관람가

지상파 드라마 더 독해졌다

안방극장이 살인·복수·성(性) 등 '19금' 소재들로 채워지면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2일 첫 방송된 SBS 주말극 '돈의 화신'이 첫 회부터 낯 뜨거운 러브신·독살 시도·살인 누명·복수 등의 내용으로 전개되며 선정성과 막장 논란 속에 출발했다.

검사 이차돈(강지환)을 중심으로 권력와 비리로 얽힌 한국 사회의 이면을 그린 이 작품은 이날 이중만 회장(주현)의 내연녀 은비령(오윤아)과 이 회장이 후원하던 사법연수생 지세광(박상민)의 베드신과 키스신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또 지세광이 과거 이 회장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연을 고백하며 이 회장을 독살하려는 장면도 전파를 탔다.

SBS 월화극 '야왕'은 지상파 드라마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예 2~4회를 19세 관람가로 방송하기도 했다. 남자 주인공 하류(권상우)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몸을 팔았고, 여주인공 주다해(수애)는 자신을 성폭행한 양부를 살해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남편과 아이를 죄책감 없이 버렸다.

이 같은 내용은 불륜·자살 등으로 점철된 2000년대 막장 드라마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긴장감이 넘쳐 재밌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극적인 내용이 도를 지나쳤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방송 관계자는 "정치·사회 정의가 상실되고 각박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치열한 시청률 경쟁에서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자극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관원기자 ssk0427@metroseoul.co.kr

유빈(왼쪽)·한승연

원걸 유빈·카라 한승연 나란히 연기자로 데뷔

25세 동갑내기 아이돌인 카라 한승연과 원더걸스 유빈이 나란히 연기자로 데뷔한다. 이들은 2007년 함께 데뷔해 한류 열풍을 이끌어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연기로 펼칠 새로운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한승연은 4월 방송될 SBS 새 월화극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 숙빈 최씨 역으로 캐스팅됐다. 무수리 신분에서 빈을 거쳐 아들을 왕(영조)까지 만든 인물로 숙종(유아인)을 놓고 장옥정(김태희)과 팽팽히 맞선다. 소속사 DSP미디어는 "국내외를 오가는 바쁜 스케줄 속에도 차분히 연기를 준비했다. 그동안 카메오 출연이나 일본 드라마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국내 정극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라 남다른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빈은 다음달 방송될 케이블 채널 OCN의 10부작 드라마 '더 바이러스'에 출연한다. '더 바이러스'는 3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특수감염방 위기대책반의 활약을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다. 유빈은 현재 해커 출신의 IT 전문가 이주영 역을 맡았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주영은 실제 유빈의 이미지와 비슷한 점이 있는 캐릭터라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빈은 특수감염방 위기대책반장 이명현 역을 맡은 엄기준과 호흡을 맞춘다.

/유순호기자 suno@

주사 한방으로 지긋한 어깨통증 탈출

유상호 병원에 물어보세요!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 어깨충돌증후군, 오십견, 석회성 건염 등 다양하나, 이러한 다양한 어깨통증 질환의 정확한 치료법에 대해 유상호병원 유상호(사진) 병원장에게 도움말을 들어봤다.

회전근개 파열·어깨충돌증후군·오십견·건염 등 증상따라 프롤로 인대주사·관절초음파 효과적

어깨 질환의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충돌증후군이다. 회전근개 중 극상건은 가장 위쪽에 있으면서 견봉이라는 뼈의 밑에서 움직이는데, 어깨의 지붕 역할을 하는 견봉돌기의 선천적 모양에 따라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발생시킨다. 이를 어깨충돌증후군이라고 한다.

어깨충돌증후군은 견봉의 밑면이 편평한 모양일 때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견봉 밑면이 구부러지거나 인대등 함께 심하게 돌출돼 있는 모양일 경우에는 운동 시 인대를 자극시켜 손상시키는 회전근개 파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충돌증후군은 대개 30대에서부터 증상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회전근개 점액낭의 염증이다. 회전근개 자체의 급성 부종을 일으키는 회전근개증이 발생되다가 40대에 들어서는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과 동반된 심한 염증으로 증상이 심해진다. 50대에 들어서는 회전근개의 전층 파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상호 병원장은 "초기의 부분적인 파열만 있는 단계에선 인대의 재생을 유도해주는 프롤로 인대강화주사 치료로 손상된 회전근개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다"며 "파열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 프롤로 주사보다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진 DNA 주사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관절막 두꺼워지는 오십견

오십견은 어깨 관절막에 외상이나 과다 사용, 수술로 인한 장기간 고정, 당뇨 등의 이유로 염증이 발생한다. 염증성 변화로 인해 관절막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고통과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대개 관절막 전체에 염증이 완성되는 시기는 약 6개월 정도다.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이미 두꺼워지고 심해진 관절막의 염증 조직은 다시 정상화되기까지 힘든 치료 방법을 요하기 때문에 초기 오십견을 정확하게 진단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오십견은 관절 초음파를 통해 쉽고 빠르게 진단이 가능하다.

치료 방법으로는 유착이 일어난 관절막 부위에 기느다란 주삿바늘로 유착을 풀어주는 동시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물을 관절막에 직접 투여하는 유착박리주사(FIMS) 시술로, 평균 4~6주 치료가 필요하다.

◆어깨힘줄 사이 석회 녹는 건염

석회성 건염은 어깨 힘줄에 석회성 물질이 생기는 질환이다. 어깨 뿐만 아니라 팔꿈치, 손목 등 여러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다. 화학적 종기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어깨 연대 사이에 형성돼 있던 석회가 갑자기 녹으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내뿜기 때문이다. 석회성 건염은 만들어질 때가 아닌 녹을 때 주로 통증을 일으킨다.

유 원장은 "엑스레이와 관절 초음파를 통해 쉽게 관찰할 수 있다"면서 "주삿바늘을 이용해 석회를 직접 제거하고, 빨리 녹는 주사약을 직접 주입하는 '초음파 유도하 석회제거술'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은지기자

건강선물로 센스있는 효도

부모님을 위한 설 선물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물론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더 좋겠다.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티타임을 선물해보자. 최근 홍차가 건강 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차 전문 브랜드 립톤은 최근 클래식 다즐링·마일드 실론·솔리드 아쌈·러시안 얼그레이 등 블랙티 4종을 출시하며 옐로우 라벨티와 함께 총 5종의 홍차를 국내에 소개했다.

50대 이후 건강 상태에 맞는 특화된 제품을 고르는 안목도 중요하다. 세노비스는 최근 설을 맞아 가족의 나이와 건강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절날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그중 관절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인체 시험을 통해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을 개선하는 기능이 확인된 식물성 로즈힙 분말로 만든 조인트 플러스 로즈힙 세트가 제격이다.

평소 손발의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한다면 파라핀 베스가 도움이 된다. 뜨겁게 데워 녹인 파라핀 왁스가 담긴 본체에 손을 담갔다 빼내 공기 중에서 4~5초 동안 굳히는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하고 15분 후 파라핀을 벗겨내면 된다.

/김은지기자

인공관절 20대서 중년까지 '쌩쌩'

한국 축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재진 선수가 2011년 갑작스럽게 은퇴했다. 이유는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에 의한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다.

조 선수처럼 젊은 30세 이전 환자들은 인공관절의 짧은 수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수술을 기피해 왔다. 하지만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인공 고관절로 치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10년 이상 지나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대목동병원 인공관절센터 김영후(사진) 교수팀은 1995년부터 2001년 사이 인공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30세 이하 9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측정한 엉덩이 관절 기능점수와 만성 고관절염 환자의 장애나 통증 정도를 알아보는 WOMAC 점수를 2011년 측정한 점수들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100점 만점인 엉덩이 관절 기능점수는 수술 전 평균 41점이었던 것이 95점으로 100% 가까이 기능을 회복했다. WOMAC 점수는 66점에서 16점으로 크게 줄어 통증과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김영후 교수의 이번 논문은 최근 세계적인 정형외과 학술지인 미국판 JBJS에 게재됐다.

/김은지기자

설연휴 사흘 뒤 밸런타인데이 … 유통가 '러브마케팅' 달달하네

자기♥야, 깜빡잊기 없기!

밸런타인데이(14일)를 앞둔 유통업계의 발길이 분주하다. 올해 밸런타인데이가 설날 연휴와 가까운 탓에 명절 분위기가 수그러들까 일찌감치 '러브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연인들을 겨냥한 한정판 선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로맨틱한 하트 무늬를 새긴 제품이 많다.

스타벅스커피는 하트 무늬가 시선을 잡는 초콜릿과 머그, 텀블러 등을 오는 14일까지 판매한다. 밸런타인데이에 어울리는 에스프레소 샷 케이크, 레드 데니시 등 달콤한 메뉴 3종도 출시했다.

수제 머핀 커피전문점 마노핀에선 연인들을 겨냥해 만든 컵케이크와 미니 선물 '더 로맨티 8종'을 선보였다. 벨벳 같은 부드러운 맛과 초콜릿의 달콤함, 앙증맞은 디자인에 신경 썼다.

'멋남'을 위한 선물들은 보기만 해도 근사하다. LG패션의 TNGT가 선보인 선물세트는 로맨틱한 하트 무늬가 촘촘 새겨져 있다. 넥타이, 행커치프, 양말, 부토니에로 구성됐다. 화장품 브랜드 키엘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3가지 아이템을 담은 '밸런타인데이 기프트 세트'를 준비했다. 폼 클렌저, 수분 토너, 모이스처라이저에 초콜릿과 향말을 덤으로 챙겼다.

로맨틱한 향미가 매력적인 프리미엄 맥주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는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했다. 산토리 캔맥주(350㎖) 4캔을 묶은 포장을 빨간색 하트와 리본으로 장식했다. 이달 중순까지 대형마트에서 한정 판매한다.

유기농 공정무역 초콜릿과 커피로 구성된 세트 상품도 나왔다. 공정무역 브랜드 아름다운커피는 7일까지 소셜커머스사이트 티켓몬스터에서 '이름 초콜릿'과 '이름 아메리카노'를 특별 구성해 27~31% 싸게 판다.

◆타임스퀘어·디큐브서 프러포즈

밸런타인데이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프러포즈다. 사랑 고백을 돕는 이벤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는 '공개 프러포즈 이벤트'에 참여할 커플을 모집하고 있다. 오는 16~17일 진행되는 이벤트는 주인공 커플의 러브스토리로 꾸며지는 뮤지컬 갈라쇼와 깜짝 프러포즈 형식으로 꾸민다. 타임스퀘어 측이 70만원 상당의 스톤헨지 다이아몬드 커플링을 선물한다. 11일까지 타임스퀘어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여섯 커플을 선발한다.

서울 신도림 디큐브백화점 내에 설치된 4m 높이의 대형 하트 조형물 앞에서도 프러포즈 행사가 열린다. 초콜릿 브랜드 페레로로쉐가 세 커플을 뽑아 14일 공개 프러포즈 기회를 준다. 6일까지 디큐브시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하트 넥타이 선물하고 복합몰서 공개고백 받고

멋있는 데이트 … 커플 쿠킹클래스 가볼까

달콤쌉싸름하게… 사랑을 요리하는 시간

매년 돌아오는 밸런타인데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요리 데이트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CJ푸드빌 – 14일 오후 7시 CJ푸드월드 제일제당센터점에서 커플 요리교실을 개최한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 '마스터셰프 코리아' 우승자 박준우 셰프가 스테이크와 디저트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5일까지 CJ그룹 블로그(blog.cj.net/719)에서 신청.

◆샘표 – 14일 오후 7시 식문화연구소 지미원에서 '커플 쿠킹 클래스'를 연다. 요리연구가 홍신애에게 연어스테이크와 생딸기 초콜릿 등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5일까지 홈페이지(www.sempio.com)에서 신청.

◆세종호텔 – 와인&다이닝 '베르디'는 13~17일 밸런타인데이 프러포즈 메뉴(11만~15만 2인 기준)를 선보이고 '초콜릿 만들기 클래스'를 연다. 쿠킹 클래스는 프러포즈 메뉴 주문 고객 20명을 대상으로 8일 오후 7시 진행된다. 참가자는 7일까지 전화(02-3705-9146)로 예약.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 30층에 위치한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11일 오후 3시 DIY 초콜릿 쿠킹 클래스가 열린다. 참가비는 10만원이며,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디너를 이용하는 고객은 무료다. 문의 (02)3430-8630.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 8일 오후 6시 초콜릿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 최고급 발로나 초콜릿으로 가니슈 만들기 등을 배우고 완성한 수제 초콜릿은 포장해 선물할 수 있다. 1인당 7만원. 문의 02)6282-6738

/박지원기자 pjw@

평창 응원하면 리프트 무료

휘닉스파크-메트로신문 취팍에서 2018 응원하라

휘닉스파크가 메트로신문과 함께 내일(5일)까지 '휘팍에서 2018 영광의 순간을 준비하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메시지와 설원에서 찍은 커플사진을 올린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휘닉스파크 리프트권(1인 2매)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응모 기간 중 수시로 발표해 총 30명을 선발한다. 이번 주에 뽑힌 사연을 소개한다.

◆당첨사연

1. "겨울이 즐거운 커플 보더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새하얀 설원위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이 너무 좋아요. 2018년엔 평창 동계올림픽 덕분에 더욱 즐겁겠죠? 겨울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즐겨봅시다!" (ID:지붐이)

■ 스키어·보더의 천국 '휘팍'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파크는 스키·보드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총 23면의 슬로프 중 12면의 FIS 공인 슬로프를 비롯해 광활한 스키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스키어와 보더를 위한 하프파이프, 난이도별 점프대와 레일 등이 설치된 익스트림 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렌탈용 보드 장비를 '버튼'의 최신 제품로 교체하고, 지방 무료 셔틀버스를 구미·청주·대전·대구·부산 등으로 확대 운영해 더욱 편하게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다. 문의 1588-2828

설 연휴엔 웅진플레이도시로

3인가족중 성인 1명 무료 귀성객 50% 특별우대도

경기도 부천의 가족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설 연휴 기간(9~11일) 다채로운 이벤트와 우대 행사를 마련했다.

명절마다 선보인 '엄마 또는 아빠 공짜' 이벤트는 올해도 계속 선보인다. 연휴 동안 3인 이상 가족이 워터파크&스파 또는 스키&보드 이용권을 결제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은 무료다.

장거리 이동에 지친 귀성객들에겐 '귀성객 50% 특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내 이용한 볼거리트, 철도, 버스, 항공 등의 교통편 영수증을 제시하면 1매당 2인까지 워터파크&스파 또는 스키&보드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워터파크&스파에서는 이색 팔씨름 대회가 열린다.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우승자에겐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다. 대형 윷놀이·투호 등 우리의 전통놀이와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워터게임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문의 www.playdoci.com·1577-5773

/박지원기자

설 물가 싹둑 자르는 '옥션걸' 통쾌

이세영 CF '설 선물대전' 편

'옥션걸' 콤비드 이세영이 이번엔 설 명절 물가를 잡으러 나섰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이 최근 선보이고 있는 CF '설 선물대전' 편에서 이세영은 핑크색 후드티셔츠 차림의 귀여운 무사로 변신했다. 허리에 칼 대신 장착한 가위를 치고 살아면 치솟는 물가를 향해 골진, 물가를 싹둑 자른다.

옥션의 이번 CF는 '열려라 2013' 편에 이은 두 번째 작품으로 전편에서 '옥션걸'로 등장한 이세영은 여전히 깜찍하고 발랄한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자르는 모습으로 재미와 통쾌함을 동시에 선사했다는 평이다.

김연아 '트윗자키' 변신

스페셜올림픽 명쾌한 해설

'피겨여왕' 김연아(사진)가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을 해설하는 '트윗자키'로 깜짝 변신했다.

김연아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윗자키 김연아입니다. 신나는 스페셜올림픽 현장 소식을 들려주겠다"며 "패럴림픽은 신체·감각장애를 지닌 엘리트 선수들이 나오지만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를 지닌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두 장애인올림픽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송영민이 2001년 알래스카 동계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한 한국의 스페셜올림피언 1호"라며 "스페셜올림픽은 경기의 승패보다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선수들 모두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호날두 "에고고" 데뷔 첫 자책골 기록 레알 마드리드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3일 열린 프리메라리가 그라나다전에서 상대 수비수와의 충돌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호날두는 이날 전반 22분 상대 코너킥을 걷어내려다 자책골을 넣어 팀이 0-1로 패하는 원흉이 됐다. /AP 연합뉴스

미켈슨 7언더 버디쇼 PGA 통산 41승 눈앞

필 미켈슨(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피닉스오픈에서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미켈슨은 3일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만 7개를 쓸어담아 7언더파 64타를 쳤다. 중간 합계 24언더파 189타로 2위 브랜트 스니데커와는 무려 6타 차이다.

지난해 2월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에서 우승한 미켈슨은 이로써 투어에서 개인 통산 41승째를 눈앞에 뒀다. 2라운드까지 공동 5위를 달린 위창수는 버디 2개와 보기 2개로 이븐파에 그쳐 공동 20위(11언더파)로 밀려났다. /김민준기자

구자철 '킬패스' 시즌 첫 AS

손흥민 지독한 골대 불운 무득점… 박지성 벤치만 지켜

구자철(24·아우크스부르크)이 친정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시즌 첫 도움을 기록하는 동안 '맏형' 박지성(32·퀸스파크 레인저스)은 벤치를 지키는 등 유럽파 축구스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구자철은 3일 열린 2012~2013 독일 분데스리가 20라운드 원정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팀이 0-1로 지고 있던 전반 25분 안 모라베크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다.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의 몸을 맞고 흘러나오자 페널티지역 오른쪽 구석에서 볼을 잡아 골대 앞으로 쇄도하는 모라베크에게 연결해줬다.

시즌 공격 포인트를 3골 1도움으로 늘렸고, 아우크스부르크는 1-1로 비겼다. 지동원은 3경기 연속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후반 42분 물러났다.

손흥민(함부르크)은 강호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은 0-2로 패했다. 지독하게 골운이 따르지 않았다. 후반 6분 날린 헤딩슛이 상대 골키퍼의 손에 걸렸고, 6분 뒤 때린 왼발슛은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다. 후반 18분에도 상대 수비수의 머리를 맞고 흐른 볼을 잡아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 위쪽으로 살짝 벗어나면서 땅을 쳤다.

◆ 기성용 풀타임 출장

박지성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리치시티전에 결장했다. 교체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레드냅 감독은 지난달 말 새롭게 합류한 삼바와 타운센드를 교체 카드로 활용했다. QPR은 0-0으로 비겼다.

기성용(스완지시티)은 퀸스트햄전에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풀타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스완지시티는 0-1로 패하며 정규리그 무패 행진을 7경기(2승5무)에서 마쳤다.

챔피언십에서 뛰는 김보경(카디프시티)은 리즈 유나이티드전 선발로 나서 팀의 1-0 승리에 힘을 보탰고, 이청용(볼턴)은 왓퍼드전에서 풀타임 활약했지만 팀의 1-2 패배를 막지 못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박주영(셀타 비고)은 오사수나전에서 0-1로 뒤지던 후반 16분 교체 투입돼 30여 분을 활약했다.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누비며 동점골을 노렸지만 끝내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팀도 0-1로 무릎을 꿇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구자철 "내 패스 좋았지!" 3일 볼프스부르크전에서 시즌 첫 어시스트를 기록한 구자철(가운데)이 골을 넣은 모라베크(왼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저리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혈전,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만성두통이나 편두통, 목·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근육마비,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안면마비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끼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질적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흔히 죽은피를 빼낸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이다. 금진옥액이라는 말은 시술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입안에서 마치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시술한 부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다. 대개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탁할수록 혈액순환은 장애를 받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할 정도의 통증만 느낄 뿐이다. 단, 혈관지성 빈혈 혈우병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늘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담앤이한의원(www.moonhill.co.kr)의 배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청해지료, 청장요법 등으로 인체 정화를 통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범람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묵은 변이나 숙변이 고여 있게 되어 우-1 몸에 유해한 세균이 번식하여 생긴 부패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청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간 속에 분포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활히 배출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치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줄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청장요법과 간정화치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한의학박사 허향구 원장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6 What time did you get up yesterday morning? 어제 있었던 일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문으로 합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제 형은 저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8시에 집을 떠나서 8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했어요.
저는 밤 11시 30분에 잠 자러 갔어요.
저는 바로 잠이 들었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 time did you get up yesterday morning?
My brother got up earlier than I did.
I left the house at 8 o clock and got to work at 8 30
I went to bed at 11 30 p m
I fell asleep immediately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Did you go to bed early last night?
B Yes I was so tired that I fell asleep 바로.

정답 immediately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at time did you [get to school / get home] yesterday? Was it late?

2 I went to bed [at about / after] 11 30 last night.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형용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insecure	형 불안한, 확신할 수 없는 insecurity 명 불안감	low-paid insecure jobs 임금이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
promising	형 유망한, 잘 될 것 같은	promising young authors 유망한 젊은 작가들
tentative	형 잠정적인, 일시적인 tentatively 부 시험적으로, 임시로	a tentative schedule 잠정적인 일정
unique	형 독특한, 특이한(= distinctive) uniqueness 명 독특함	come up with unique ideas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다
unprecedented	형 전례 없는	face an unprecedented crisis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다
unsuitable	형 부적절한, 부적합한 (for)	unsuitable for the job 그 일에 적임자가 아닌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6 Express an opinion

본인 의견 재확인하기

That is why I prefer the option. 이러한 이유로 저는 그 선택을 선호합니다.

예시 및 근거 제시를 한 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의견을 정리할 때는 위의 같이 간단한 한 문장으로 말한다. That is why 뒤에는 결과가 오게 되며 예시 및 근거들을 제시한 후 의견을 마무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의견을 재확인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남은 시간과 답변 내용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답변에 사용하도록 하자.

- 답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문제의 일부분을 재진술하여 의견을 정리한다.
  That is why I prefer to spend my free time with other people.
  이러한 이유로 저는 다른 사람들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 답변 시간이 촉박할 때: 내가 선택한 사항에 해당하는 문장을 the option이라는 한 단어로 대신한다.
  That is why I prefer the option.
  이러한 이유로 저는 (내가 앞서 말한) 그 사항을 선호합니다.